

# “체험담으로 쉽게 쓴 금강경”

## 8旬 윤을순교수의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 “부처님 행적은 모두 깨달음의 자료”

### IMF 고통받는 이들에게 유익한 메시지



올해 82세인 윤을순교수(前 동국대)가 체험담을 엮어 펴낸 경전해설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신우당 펴냄)은 이 어려운 IMF 시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알기 쉽고 애정이 가득 찬 메시지다.

이 책은 보편적인 여러 일화와 내용을 삽입해서 오늘날의 시점에서 매우 유익하고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체험담 위주로 《금강경》을 해석하고 있다.

“성스러운 사람이나 죄많은 보통사람들이나 모두, 《금강경》에 제시된 수행법인 《금강경 수지독송(受持讀誦)》을 통해서 결국은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간곡하신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까?”라는 윤교수는 “부처님의 행적이 모두 의미가 있으며 깨달음의 자료이죠”라고 말한다.

윤교수는 금강경에 섰해지고 있는 핵심의 가르침인 부처가 되는 방법, 윤회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여러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학자·문인들의 글속에서 읽어내기도 한다.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항복받는가?”에 대해 ‘먼저 깨치고(항복받고), 그뒤에 머무르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백성욱박사(前 동국대 총장)의 명쾌한 해석을 소개한다.

“중생이 어떻게 중생을 부처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 항복방법으로 무슨 생각이든지 제도하는 부처님께 바치자, 즉 맡기지는 것이다.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득컴컴한 자기

생각을 부처님의 맑은 마음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 속의 망념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었다면 제 마음은 비었을 것이요, 제 마음이 비었다면 지혜가 날 것이다.”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베스트셀러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말씀들이 모두 《금강경》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경전을 처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체로 쓰여진 이 책은 친숙한 옛날이야기를 듣듯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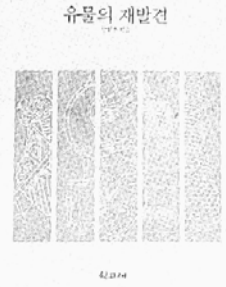
윤교수는 또 먼저 깨치고 난 뒤에 그 깨침이 저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무소주 행어 보시(내 마음도 없이 보시를 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업보를 향하지 않고

하는 보시가, 바로 부처님을 향하는 보시이며 업보가 없는 것이 부처님이 머무르는 자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의 핵심으로써 마음공부의 가장 중요한 테마임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 뒤늦게 ‘나이에 불교에 입문 누구 못지않은 열성으로 공부에 매진해 온 윤교수가 80을 넘어선 나이에도 왕성한 기력으로 마음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금강경》 공부 덕분이다. 현재 일선에서 불교실천수행법을 연구하는 ‘바람 연구원’을 이끌어 오고 있는 윤교수는 3년전부터 《금강경》 제13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잠 해탈을 위해 하루 3시간만 자는 ‘자사가행정진기도’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위타인설하는功德는 세상의 그 어떤 공덕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발심한 불자들은 집착하지 않고 여려하게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안다면 범부로부터 출발하더라도 성인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은자 기자



## “유물관리 잘못 많다”

### 남천우박사 ‘유물의 재발견’ 펴내

### 조계사종행방·가치 등 논란 일듯

남천우박사(66·前 서울대 교수)가 최근 펴낸 《유물의 재발견》(학고재 펴냄)은 조계사종행과 석굴암, 대왕암, 청성대, 거북선 등 그간의 문화재보존과 학술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남박사는 이 책에서 일제시대때 국보로 지정됐다 해방후 지정해제된 조계사종행에 대해 “조계사종행은 삼국시대 구형 종의 형식(고대 중국종 또는 일본의 일본종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으로부터 신라시대 신형 종의 형식(한국종의 형식)으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범종 유물이며, 이 종이 지니는 여러 특징들은 모두 이 종이 소위 한국종으로서의 신형식이 완성되기 직전의 작품임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조계사종은 봉덕사신종보다도 더 귀중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잘못된 감식으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소홀히 되어 현재 그 행방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조계사 종은 그동안 조계사에서 보관해 오다 지난해 11월부터 종이 없는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에 임시 봉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같은 남박사의 견해에 대해 황승영박사(前 국립중앙박물관장)는 “일제시대때 남산의 일본인 사찰에 있었던 조계사종은 그 건조양식이 신라시대 종의 주요양식과는 전혀 다른 전형적인 일본종으로 당시 문화재관리국과 여러 관계자들이 관평했다”라고 반박했다.

조계사측은 “일본종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일제시대나 해방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종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동안 초파일 제등행렬시에 조계사에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조계사종의 원봉안처인 경기도 양평 상원사(주지 호산)가 조계사측에 종을 돌려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남천우박사는 이 책에서 “내가 제기한 여러학술과 문제점들에 대해 활발한 반론이 일어나, 학술적 대립을 통해서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하루속히 정립될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은)

## 시현스님 추모문집 ‘주어서 비워지는 마음’

### 법문·수필·일기등 모아 구성

불교계 최초의 실버타운인 보리수마을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시현스님의 1주기를 맞아 스님의 일생과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유업을 기리기 위한 문집 《주어서 비워지는 마음》(불지사 펴냄)이 출간됐다.

“반아서 채워지는 마음보다 주어서 비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평소 늘 말했던 스님의 생활철학이 담긴 이 책은 교학편·법문편·논문편·수필편·복지사업편·일기초·후모편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720쪽에 달한다. 스님이 법수선원 주지로 있을 때 발행했던 사보(寺報)인 《법보·法報》와 《법수법보》에 실었던 글들과 녹음으로 남아 있는 법문, 그리고 스님이 쓴 복지사업의 글들을 실었다.

스님은 해인사 강원과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하고, 해인강원의 학감을 지내며 후학들을 지도하는 등 학승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불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원력으로 88년 무의탁노인을 위한 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나의 삶, 이제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나? 성직자의 삶. 나는 불교복지에 발을 디뎠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중사를 할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망설이나, 정열을 바치자. 중생의 고통이 없다면 성인이 왜 필요할까.”

특히 33년부터 입적 직전까지 거의 매일 써 온 일기형식의 메모속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스님의 견해와 수행자로서의 치열한 구도과정, 학승으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시와 그림이 있는 엮편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딸린 《결결》(가서원 펴냄)은 독특한 형태의 책이다. 깨달음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호탕한 조롱같기도 한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황금비늘》의 소설가 이외수씨와 《허무춤》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젊은 소설가 하청수씨가 함께 펴냈다.

하씨의 짧은소설(엮편소설)에 이씨가 시와 그림으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사람과 세상을 보는 특유의 눈빛과 감성으로 세속에 찌든 우리들의 삶을 눈물겨울 만큼 맑은 빛깔로 그려내고 있다.

“부처를 잡으러/부처를 잡으러//한광생/맨발로 피흘리며/수미산 꼭대기에/올라와보니//아름사/부처는/수미산 밑/내가 출발한 바로 그 자리//가장 낮은 몸으로/앉아있었습니다” 어느 스님의 구도과정의 고뇌를 의미심장한 필체로 그려낸 하씨의 ‘하늘’이라는 이야기에 이어 화답한 이씨의 ‘하늘보다 높은 하늘은’이라는 이 시속에 《결결》의 깊은 주제를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상의 작은 단면들을 날카롭게 포착해 그속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전한다. (가서원 6천8백원)



시와 그림이 있는 엮편소설 ‘결결’ “삶의 의미 되새겨” 이외수·하청수씨 출간



6·25 혼란속에 부산 美문화원장의 문화재 사랑 비화

《한 이방인의 한국사랑》

다. 일제가 자국으로 옮겨가기 위해 해체한 뒤 가져가지 못한 채 현장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국보2호 원각사지 10층석탑의 복원도 그가 해낸 것이다. 당시 국립박물관장이었던 김재원씨의 조언을 얻어 미국 공병대를 동원, 46년 2월 복원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95년 한국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 책에는 한 미국인으로서 그가 전한 ‘한국문화 증진을 위한 시도’라는 제언과 문화재 사진, 당시 현장 답사 과정의 자료사진 등이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소개되고 있다.

출판문화계

## 출판가소식

### 장애문인 36명의 시

장애인문학을 대표하는 문예지 《속대문학》을 통해 91년부터 3회 추천을 받은 장애문인 36명의 시를 한권에 엮은 《슬픔마저 사랑하라》(속대 펴냄)가 출간됐다. 이 책은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경원대 김삼주교수(문예창작과)가 엮었다.

사랑을 주제로 한 58편의 시가 요점의 정신적 공황을 치유해 준다.

노사관리자의 참회기

한때 삼성그룹의 간부를 지낸 김영국씨가 간부징계하고 1호라는 불명예

를 겪으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어느 삼성노사관리자의 참회》(반도기획 펴냄)로 펴냈다.


인정받는 샐러리맨이 되기위해 노사관리 집행자로서 갖가지 불행과 탈법을 일삼았던 자신의 지난 과거를 참회하며 불보살에 의해 영혼을 구제받는 이야기를 실제 사건 중심으로 범구경의 중요내용과 함께 담았다.

##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책 사
3	부드러운 할머니 미묘한 행복론	일 타	효 립
4	불교입문	조계종교연구원	조계종출판사
5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류 시 화	열 립 원
6	49세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7	금강경의가	무 비	불 광
8	마음 알기 나누기 다투기	용 타	대원정사
9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립	행 원
10	평안정경에 숨겨진 10가지 이야기	진 현 중	혜 음

구입문의: (02)737-0695

#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시 합작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8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 祈 禱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타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의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압병도 불처방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의 특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능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반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서출판** **동서출판** **동서출판** 전화: (02) 587-6612 팩스: (02) 586-9078